

Meut Laor [좋은 친구들]

9월호

여름이 끝날 무렵, 새로운 여름을 맞이하다.



CONTENTS

종원.한길.나래.다솔.

쫄무리음 쑤어

미팅

축구

캔따개

아띠클래스

브렉호

코코넛 파티

따꼬마으 나들이

IFS

비가 오던 어느 날

파고다 나들이

쿠키 클래스

크눔 떠으 품

CDP

쏙 써바이 떼

빨래

요리

낮잠

아침

점심

저녁

나래 괴롭히기

외식

집들이



September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 출국 캠프 →	2	3 출국! Hello :) Cambodia!	4 첫 식사 첫 장보기 대청소!	5 이안 백화점 구경	6 장보기, 캄보디아 전통주를 마심!!
7 피룸's 오리엔테이션	8 썸닝 & 탄의 오리엔테이션	9 아띠 클래스 회의/공지문 작성	10 아띠 클래스 공지문 게시	11 센터 전체 미팅 & 저녁식사	12 러시안 마켓 이안 백화점	13 씨푸드 피자(...) 로즈우드
14 한국어 수업 코코넛 파티	15 유스들과 나들이 영어 레벨 테스트	16 영어 수업 회의 아띠 데이	17 태풍! 정전! 영어 수업 취소ㅠㅠ	18 IFS 영화수업	19 러시안 마켓 한인마트 발견!! 종원 Salon	20 로즈우드 장보기 나래 Salon
21 한국어 수업	22 CDP 필드 방문 첫 영어 수업 빗속 파티	23 새로운 점심메뉴!	24 유스들과 파고다 나들이	25 쿠킹 클래스 회의 한 밤의 영화상영회	26 로즈우드 영어회의 쿠킹 클래스 실습	27 Mr.맹 집들이 나래: @-@
28 까리따스 월말 보고서 작성 한국어 수업	29 쿠킹 클래스 준비 (장보기) 영어 수업	30 쿠킹 클래스 계란말이 / 김치전	Bye, September. Hi, October! :D			



Meut Laor

[못 러:에]



23살 동갑내기 종원, 한길,
나래, 그리고 22살 막내 다솔.
한국에서 6000km 이상 떨어진
간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종원 맵(우덤)

23세 김종원. 새로운 여름과 함께 얻은 그의 새로운 이름은 Udom. 크메르어로 '대단하다'라는 뜻이다. 그는 주로 재무관리를 하며 길 찾기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다. 꼼꼼한 장부정리로 까리타스 센터에서 재무를 맡은 Sophoan을 놀라게 하기도 했으며 웬만한 톡톡 기사 아저씨보다도 길 찾기를 잘 하는 편이다. 그리하여 붙은 '종원 맵' .

간달에서 그의 일상을 채우는 일과 중 하나는 까리타스 유스들과 노는 것이다. YDP기간에는 보통 오전과 오후에 시간이 많이 남는 편인데, 그는 유스들이 쉬는 시간에 맞춰 밖에 나가 유스들과 놀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를 괴롭히는 것이다. 시도때도 없이 나라를 괴롭히는 바람에 시도때도 없이 나라와 투닥거린다.







Chef. Kim(뽀냐)

24세 같은 23세 김한길. 동남아 여행을 몇 번 다녀본 그에게도 새로운 여름이 찾아왔다. 그의 새로운 이름은 Ppannya. 크메르어로 '현명하다'라는 뜻이다. 그는 센터 직원분들과의 소통을 맡고 있으며 주로 우리의 한 끼를 책임지고 있다. 많은 끼니에서 그의 실력을 선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새로운 음식에도 도전하는 그의 모습은 다음 달의 메뉴에 기대를 갖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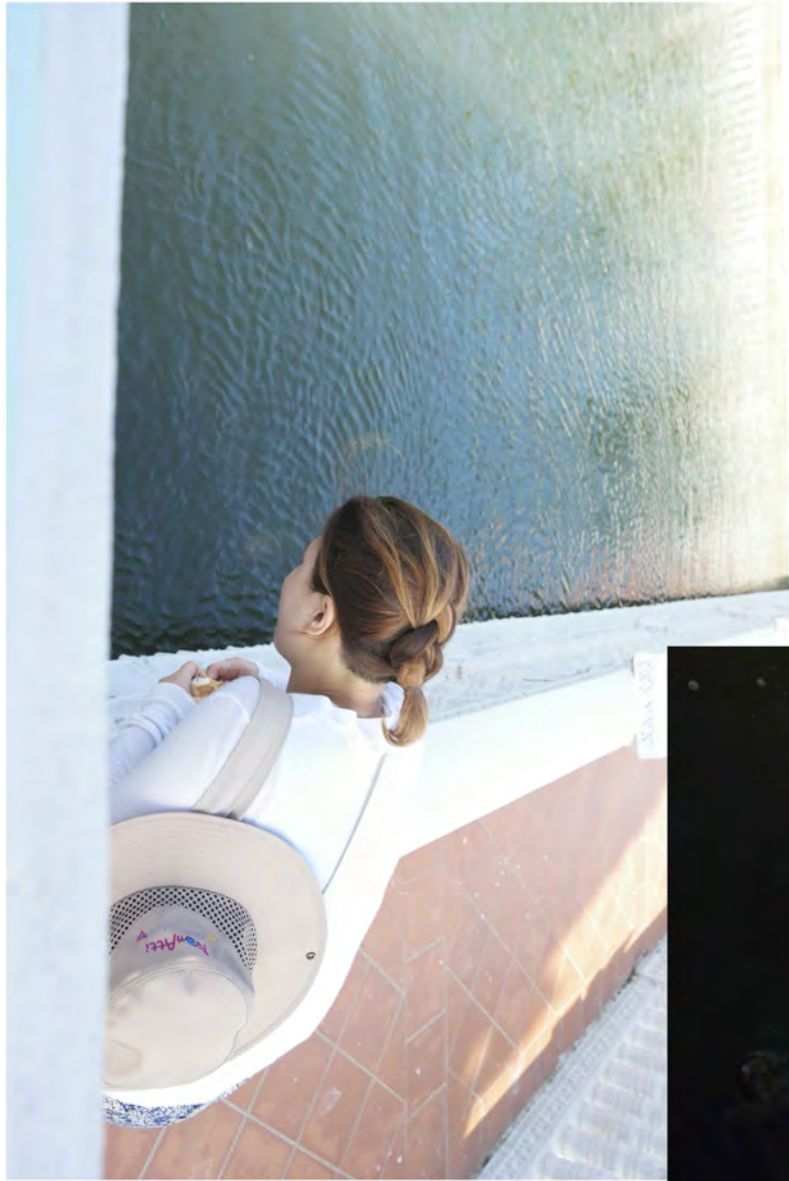
그는 평소 잘 웃지도 않고 스스로도 공감하는 데 있어 부족한 면이 있다고 말한다. 그가 이 사진을 보더니 언제 이런 사진을 찍었냐고 물을 정도다. 하지만 사실 그가 아이들을 보고 웃을 땐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한 량 (나래)

23세 서나래. 새로운 여름, “아무것도 하지 않을거야.” 그녀는 이 곳에서 새로운 이름을 만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 덕분에 누구보다 많은 이름을 갖게 되었다. 나리, 난리. 그리고 그녀가 처음 목표를 충실히 이뤄가던 중 얻은 또 다른 이름이 바로 한량이다. 물론 본인은 한량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간달에 와서 그녀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꼬까이다. 그러니까 코카콜라 말이다. 한 달의 중간정도 지났을 때였나, 하루에 한 캔만 마시겠다고 외친 그녀였으나 간달의 세찬 빗소리에 묻혀 이내 공중으로 산산히 부서졌다.





피리부는 소녀(짠뜨리아)

22세 정다솔. 새로운 여름에 새로운 가족을 얻다. 그녀의 이름은 Zantrea. 크메르어로 ‘밤하늘의 달’이라는 뜻이다. 새로운 가족들은 짠뜨리, 찌끄레기냐며 이름을 항상 놀리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름에 매우 만족하고 지낸다. 그녀는 사진을 찍는다. 사진에 담기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진의 감성이 좋다고 한다. 그녀의 이러한 모습과 이름에서도 묻어나듯이 그녀는 감성적이다. 그래서인지 사소한 것에 반응을 잘 한다. 그래서 리액션 기계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녀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아이들이다. 아이들을 보면 “아유 예뻐라”와 같은 반응들이 빠짐없이 나온다. 또한 아이들이 있으면 자석에 끌리는 것 마냥 아이들에게 다가간다. 어느 날 마을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다며 나가더니 그 주의 주말, 아이들이 집 앞 평상을 점령했다고 한다. 그 이름, 피리부는 소녀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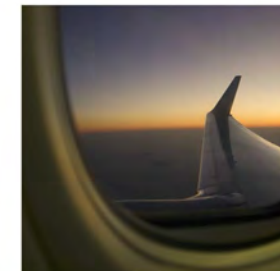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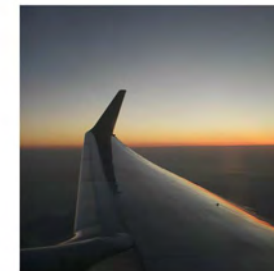


아이들의 웃음만큼 예쁜 것도 없는 것 같지 않아?



깐 달 을 만나 다

2015년 9월 3일, 한국을 떠나
2시간을 거꾸로 달려
새로운 9월 3일,
캄보디아에 도착하다.



쫘무리읍 쑤어

If you meet a person AT FIRST.

#1. 라온아띠, 좃은 친구들을 만나다.

우리와 함께 사시는 이여이, 까리타스 센터 스텝분들, 까리타스를 다니는 많은 유스(youth)들, 바로 앞 집에 사는 이여이의 첫째 딸 레아, 매일 이여이 집에 오는 손주 비싸이와 김홍, 우릴 보면 반갑게 웃어주는 많은 마을 아이들, 낯선 우리의 인사도 잘 받아주시는 마을 사람들. 새로운 여름을 맞이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첫 달에 '좋은 친구들'이라 이름 붙이는 것이 다소 성급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이 곳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우리는 매일 '좋은 친구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스텝들과 미팅

2015. 09. 08.
in Caritas



간달, 따끄돌에 도착하고 센터에 출근한 지 세 번째 날, 얼굴만 알고있던 썸낭과 탄과 만나다.

우리는 서로 소개를 하고 앞으로 5개월 간 우리의 일정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을 수 있었다.

전체 미팅 그리고 저녁식사



첫 번째 미팅이 있고 3일 후,
까리타스의 모든 스태프들과 만나다.



캔뚜껑

둘러앉았다, 동그렇게.



간달에서 맞는 햇살 좋은 일요일 아침, 우리는 까리따스 식당에 캔뚜껑과 4x4 타일을 가운데 두고 둘러 앉았다.

“누가누가 캔뚜껑을 멀리 보내나”

그렇게 우리는 친구를 만났다.

아띠들이 유스들이 원하는 수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에 맞게 수업을 꾸려 유스들의 수업이 모두 끝나는 5시 30분부터 비는 교실을 이용해 진행한다.

A T T I C L A S S

K
Korean

E
English

M
Movie

ATTI CLASS

무슨 수업을 하는 게 유스들과 좀 더 친해질 수 있을까?

아띠 클래스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한 부분이다. 정말 영어 수업이 필요할까? 정말 한국어 수업이 필요할까? 어떤 수업이 유스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데 우리가 꼭 수업을 해야 하나? 그냥 수업도 유스들과 친해지는 한 부분 아닐까? 그러면, 유스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수업이 어떤 건지 물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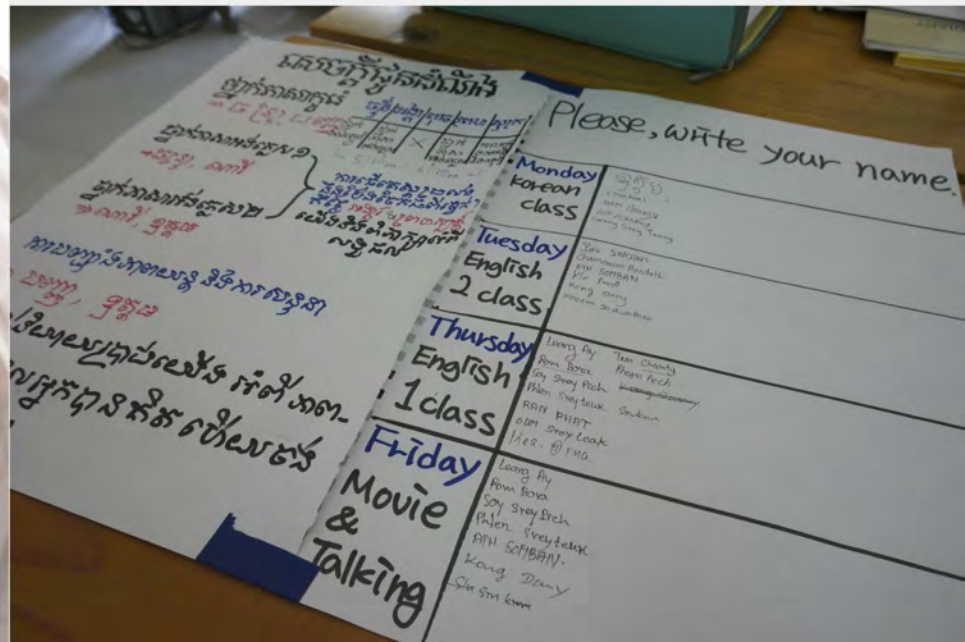


“What kind of class do you want?”



설문조사에 이어
본격적으로 수업신청을 받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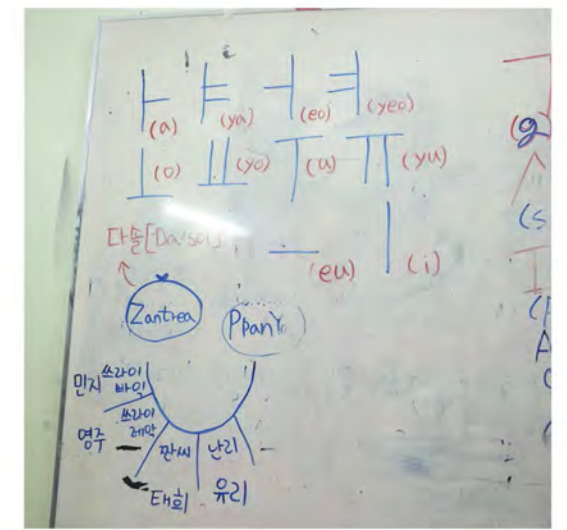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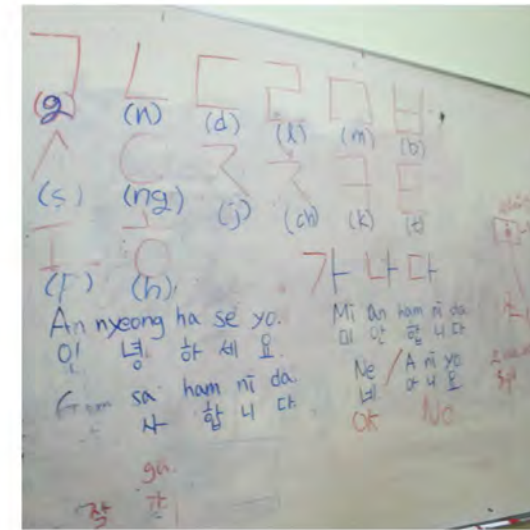
우리가 크메르어로 번역을 부탁한
속씨웃은 미술 선생님답게
그림 그리는 마냥
미세하고 정밀하게
크메르어를 적어주셨다. :)



Meut Lo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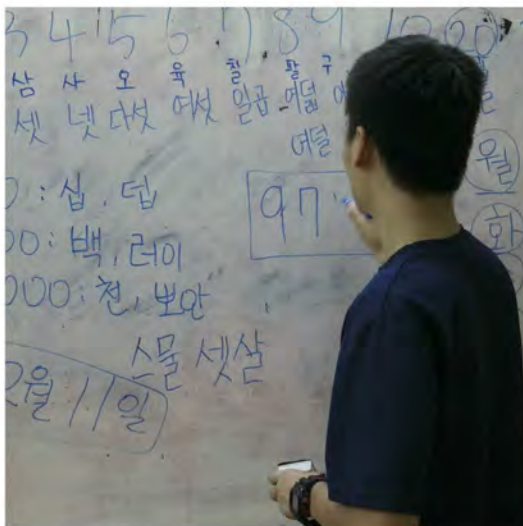
1 주 차



2 주 차



3 주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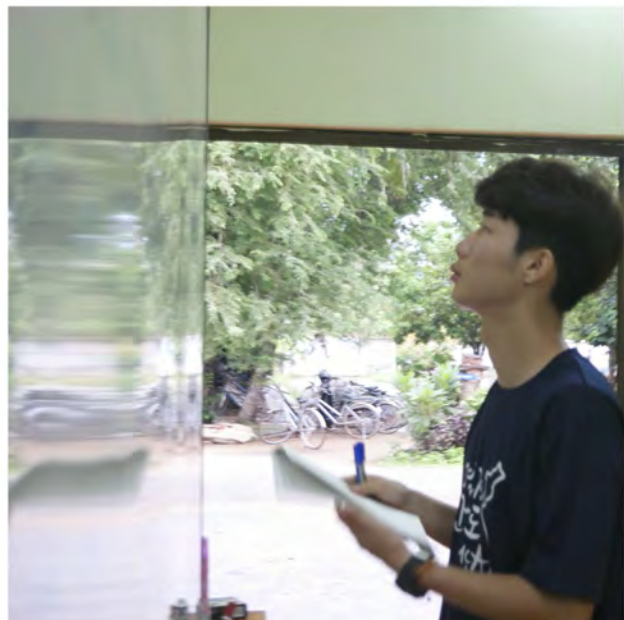


까리타스 센터에 한국어 인사말 한 마디 못하는 유스는 거의 없다. 같은 유스들을 만나는 지난 기수의 열정적인 한국어 교육 덕분일까. 그리고 그 덕에 우리는 더 이상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유스들이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됐다. 취미로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유스가 더이상 없다면,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다.

글 반냐



E English



YDP 학생들에게 있어서 영어는 좋은 직장을 갖는 첫 번째 필수 조건. 회화실력에 비해 기초가 부족한 대다수 유스들을 위한 수업들을 구상해 진행하고 있다.

영어 공부를 향한 열정은 한국 못지 않은 캄보디아다.

글 뽀냐

Movie



Man In Black

Avengers

프놈펜을 돌아다니며 많이 묻고 찾아봤지만 크메르어 자막이 있는 영화는 거의 찾을 수가 없었다. 유스들은 영어 자막 영화도 좋다고 했고, 선호하는 장르도 명확하게 통일되었다. 액션영화, 그리고 공포영화.

첫 야외 상영작인 어벤져스는 많은 유스들이 좋아했다. 유스들이 하도 고스트 영화 타령을 해서 무섭기로 유명한 ‘인시디어스’를 준비했다. 조만간 수업에서 상영할 예정인데, 이걸 보고도 숙면을 취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 유스들이나, 우리나라.

글 뽀냐



9월 16일, 유스들의 수업이 끝나고
벤레호에 같이 가겠다는 우리의 제안에
날씨가 좋지 않았음에도 흔쾌히 따라 나서주었다.
Thank you, Somban&Dany :)



Football, today? :)

이름이 뭔지, 몇 살인지, 좋아하는 게 어떤 것들이고, 요즘 하는 고민들이 무엇인지. 서로 묻지 않고도 친구가 되는 좋은 방법은 같이 몸으로 부딪히며 운동을 하는 것이다. 캄보디아에 온 지 이틀 날부터 시작해 2주를 매일같이 축구를 하고서부터 YDP의 학생들, 마을의 남자 아이들, 센터의 스태프분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 다들 우리에게 하는 아침인사는 ‘좋은 아침’, ‘잘 잤어?’ 보다는 “football, today?”이다.





COCONUT PARTY



Meut Loar



OK, WAIT.



헐 대박,
완전 코코넛 파티네 파티야.
소피우!
이제 그만 따도 될 것 같애!!



오늘 여기 코코넛 있는 거 다 따겠는데?





코코넛 파티

우듬의 코코넛 타령에 그 날, 소피우는 발에 갈고리라도 단 듯, 넓다란 칼을 줄에 매달아 들고 코코넛 나무를 성큼성큼 올랐다. 탁, 탁, 탁, 칼질하는 소리가 들리면 이내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내려오는 코코넛들.

사진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코코넛들이 모이자 병 나와 병 받은 넓다란 칼을 들고 왔다. 그리고 그녀들의 칼질 몇 번에 코코넛에 뚜껑이 생기고 달짝 지근한 코코넛 워터가 모습을 보였다.

까리타스 학생인 썩싼과 썸낭도 그녀들의 칼질을 돕자 그 많던 코코넛들이 하나 둘씩 손질되어갔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뿐 아니라 까리타스 스태프들, 그리고 지나가던 까리타스 학생들에게도 나누어졌다.

한국에서 사 마신 비싸고 맛없는 코코넛 워터가 아니라 시원하면 더 맛있을 것 같은 코코넛 워터를 정말 한없이 마시고, 보얀 코코넛 속살도 아작아작 잘 라먹고, 나는 맛보지 못했지만 우듬과 나래가 찬양한 더 맛있는 속살도 먹을 수 있었다. 아, 우듬과 반냐도 나무를 오르려 했지만 한 발을 떼지 못했다는..



“남남”
(남: 크메르어 ‘먹다’)



어디 가?

따끄마으 시장!

어, 그럼 우리도 같이 가도 돼?

그래!

어렵게 어렵게 8명을 태워주는 특특을 타고
따끄마으 시장으로 유스들을 따라갔다.
(특특: 크메르어, 차가 없는 자에게 발이 되어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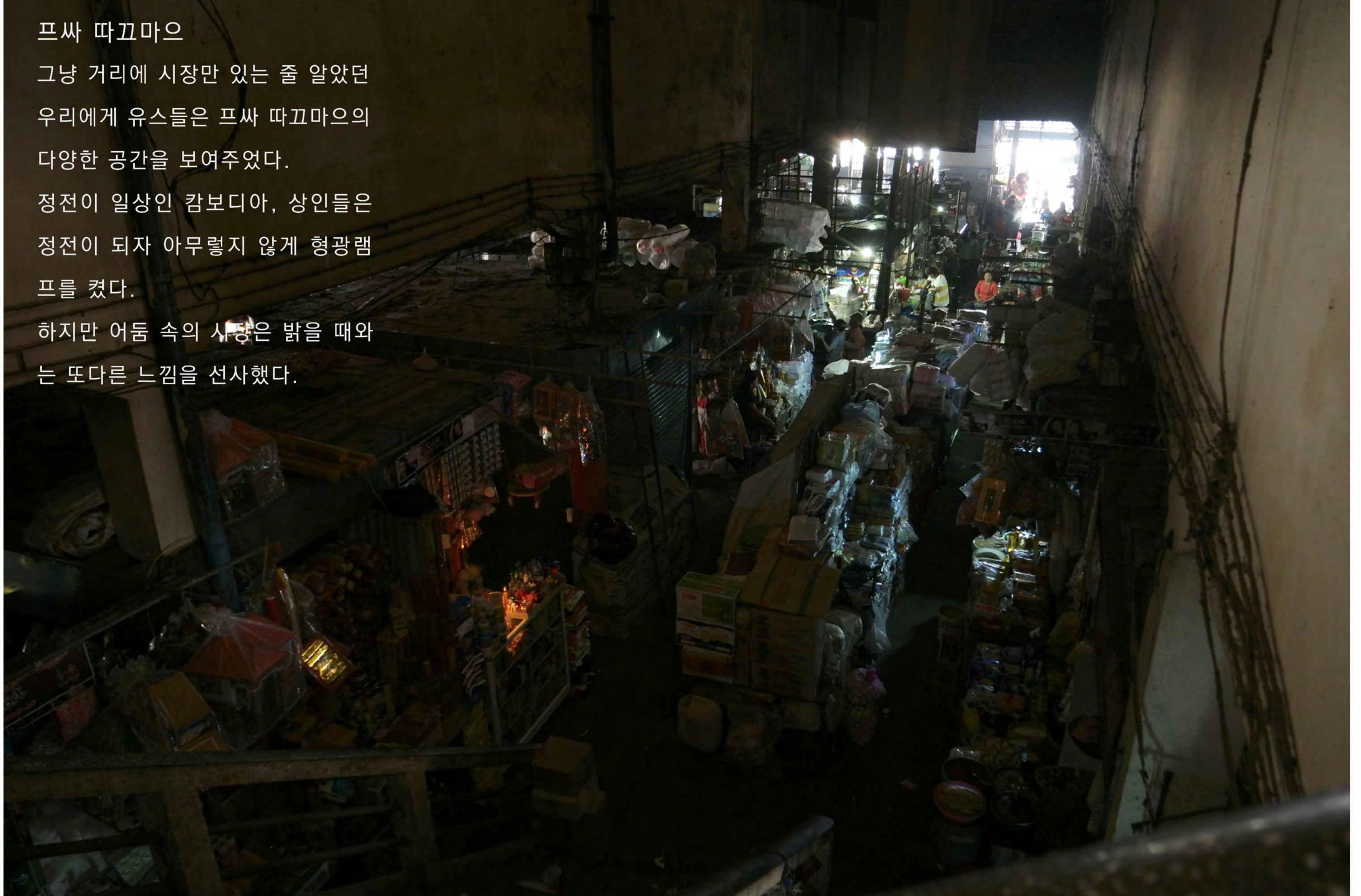


프싸 따끄마으

그냥 거리에 시장만 있는 줄 알았던
우리에게 유스들은 프싸 따끄마으의
다양한 공간을 보여주었다.

정전이 일상인 캄보디아, 상인들은
정전이 되자 아무렇지 않게 형광램
프를 켜다.

하지만 어둠 속의 시장은 밝을 때와
는 또다른 느낌을 선사했다.





하 나 , 둘 , 셋 !





GARDENING (IFS)

YDP 프로그램 중엔 IFS의 일환으로 Gardening도 있다. IFS란 Integrated Farming System이다. 특히 이번 달에 이루어진 Gardening은 이후 CDP 활동으로 필드(field)에 나가기 전 흙도 좀 만져보고 몸을 써보라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가드닝을 할 때는 CD(Community Development)반 학생들도 주로 함께 참여한다.
CD반 학생들은 영어가 힘들고 우리는 크메르어가 힘들어서 그런지 많이 안 친한 편이지만,
가드닝을 하면서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

짠띠 제외! :P



비가 오던 어느 날 이야기

지금부터 비가 오던 어느 날,
우리가 얼마나 즐거웠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거의 하루종일 정전인 날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세차게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앉아있던 우리를
 회계와 행정을 공부하는 AD반 유스들이 자신들의 반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날은 뭔가를 리허설해보는 날이라며 음식을 나눠먹고 졸업장으로 보이는 종이와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함께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실 앞으로도 나와 놀았죠.



사실 어떻게 하다
그 날의 추억이 시작됐는지
기억은 안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어쩌다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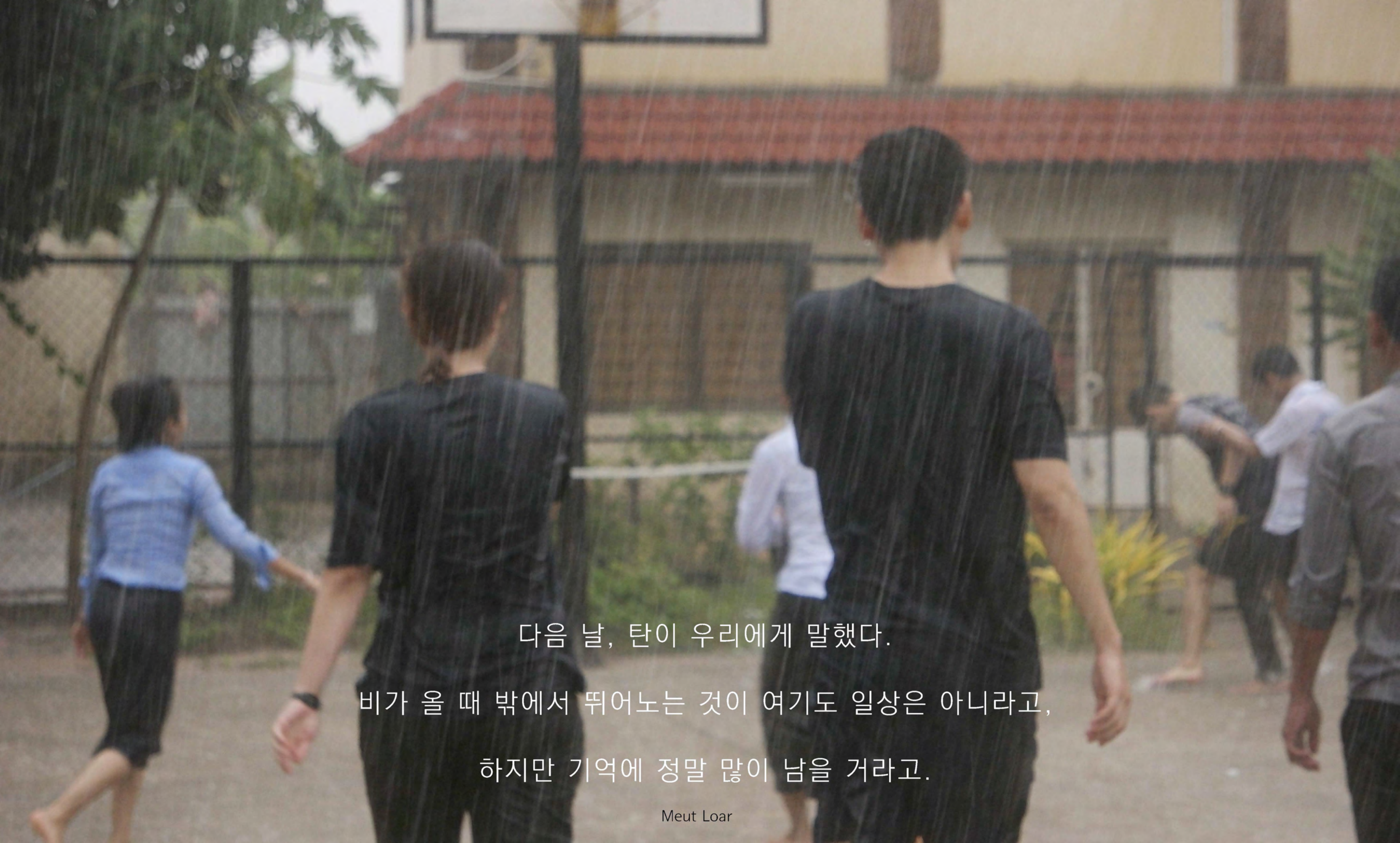
It may be our unforgettable memory.



Dany & Udom



행복은 우연이 아닌 선택의 문제다.



다음 날, 탄이 우리에게 말했다.

비가 올 때 밖에서 뛰어노는 것이 여기도 일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기억에 정말 많이 남을 거라고.





“아띠데이는 유스들과 친해지려는 거 아냐?
그냥 유스들이랑 지금처럼 놀아도 될 것 같은데..
너무 가식적인 건 싫어.”



A group of white ducks is swimming in a pond. One duck is in the foreground, facing left. A group of five ducks is in the middle ground, facing right. The pond is situated next to a building with a red-tiled roof and a concrete wall. There are some plants and a tree in the background. The water is dark and reflects the surrounding environment.

“어떻게 하면 억자스럽자 않게
많은 유스들과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또 어떻게 하려보니 비가 와서 자연스럽게 놀게 됐네.”



PAGODA

9월에 있었던 하루짜리 연휴,
유스들과 함께 브렉호에 있는 파고다를 방문하다.

파고다에 가기 전 농빵을 사길래 가서 간식으로 먹을 건가보다, 생각했더니 파고다에 사는 물고기 밥이었다. 농빵을 조금씩 떼서 호수에 던지면 잔잔했던 호숫물이 일렁이며 커다란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







우리는, 그냥 친구다.

유스와 라온아띠가 아니라

철없어도 잘 노는, 그냥 친구.



그런데 우리..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아직은 잘 모르겠다.
우리가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지.
지금은 그냥
그런 걱정없이
우리의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

아침에 보면 인사하고
같이 앉아있어도
어색하지 않고
함께 있을 때
같은 곳을 바라보는,

잘 할 수 있을까를 내려두고
그냥 당신을 만나고 싶다.

COOKING CLASS

9월의 마지막 날, 까리따스 센터 밖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 모든 유스들이 까리따스로 모이는 날이다. 이 날을 맞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쿡킹 클래스를 열었다.

쿡킹 클래스를 준비하기 전, 까리따스의 모든 유스들에게 우리 소개를 하고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서둘러 재료 손질을 시작했다. 오늘의 요리는 우듬의 김치전과 짬뽕의 계란말이! 시간이 부족할까봐 점심시간보다 이른 시간부터 준비했다. 그런 탓에 요리를 시작해도 유스들은 내려오지 않았고 우리는 음식을 조금 덜어 까리따스 스태프분들과 나눠 먹었다. 우리와 함께 사는 이여이와 이여이의 딸이자 까리따스 비공식 매점 안주인, 레아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재료 손질부터 유스들이 먹어보기 직전까지 우리는 유스들이 좋아할 지 걱정도 많이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성공적으로 끝났다. 계란말이는 우리가 준비한 양이 적어 아쉬울 정도였으니까. :)





머흙 꼬레
솜남 :)

한국음식이예요
좀 드셔보세요 :)





맛있게 먹어줘서 감사합니다. :)

여름 떠으 품

When you go to community.

#2. 라온아띠, 농부님과 마을을 만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YDP와 CDP. YDP의 경우 바로 시작했지만 CDP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그래서 10월에 마을로 가기 전, key farmer들과 그 분들의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까리따스와 우리 집 근처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넓다란 평야와 커다란 나무들이 끊임없이 펼쳐진다. 초록초록한 지평선 위로는 파랑파랑한 하늘이 이어진다. 그 하늘에는 볼 때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몽글몽글 하얀 구름이 있다. 길에는 맨발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 누구네 집 닭인지도 모를만큼 많은 닭과 병아리들이 있다. 낮은 담장 안으로 보이는 마당에는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을 몸소 보여주며 바닥에 퍼질러 누워있는 개가 보인다. 개만큼이나 여유로운 동물이 하나 더 있다. 앉았다, 일어났다, 여물 먹다, 싸다를 반복하는, 까아만 눈만큼이나 하얀 몸을 가진 소도 여러 마리 볼 수 있다.

바로 이 곳, '품'의 일상적인 풍경이다.

(품: 크메르어 '마을')



‘포’
품



Tairt Ma

Chrey Royong

Svay Prey

우리는 세 군데의 마을에서
6명의 농부님을 만났다.
그 분들의 집을 방문해
직접 일구신 닭장 혹은 밭을
직접 볼 수 있었다.

Vong Yong, Koe Vang, Kheav Kheam,
Chun Chum, Am Vanna, Bu Mirh





10월달엔 농부님들과 더 많이
이야기하고 만날 수 있길 :)

속 써바이 떼 :)

If someone ask that how are you?

#3. 라온아띠, 라온아띠를 만나다.

“애들아, 일어나. 20분이야.”

“오빠 안녕” “어, 안녕”

“8시 다 됐다. 빨리 가자.”

“다솔아, 나 너 노트북 들고 먼저 간다.”

“응~”

“나 한국 갈래.”

“어, 제발 가.”

“근데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너랑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할까?”

“어~ 그래~ 근데 그럼 나도 갈래.”

“안돼! 아무도 못 가!”

“야, 근데 너는 한국 안 가냐? 넌 좀 가라.”

“싫어, 난 안 가.”

“배고파... 우리 오늘 저녁 뭐야?”

“음... 오늘은 찌개 하나 끓이자.”

“그래!”

“근데 오늘 미챠 먹고 싶은데”

“미챠도 사와 같이 먹자.”

“그럼 언니랑 나랑 사올게.”

“그래”

“콜라도 사와. 다 마셨어.”

“나는 진짜 콜라 딱 한 개 먹었는데 누가 다 마셨어? 서나래 너지.”

“야. 아니거든?”

“야. 아니거든?”

“빨리 미챠나 사와, 임마.”

한 지붕 네 사람, 한 지붕 두 침실, 한 지붕 한 식구.

저희, 진짜, 잘 살고 있어요!

뭐해?

빨래

야, 오늘 빨래하는 날이야.

비 온다!

아, 내 옷!!

망했어.. 다시 빨아야 돼..





세바늘 래

지금 캄보디아는 우기이다. 새파랗게 파란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여기는 먹구름이 한가득 끼어서 비가 오는데 지평선 부근에는 새파란 하늘이 보인다.

바람도 선선하고 별이 좋은 날, 비가 오지 않을 거란 희망을 갖고 열심히 손 빨래, 발 빨래를 한다. 보송보송한 옷을 위해. 빨래를 마친 옷가지들은 빨래 바구니에 담겨 밖으로 옮겨진다. 탁, 탁, 옷가지의 구김을 펴주고 예쁘게 빨래를 낸다. 한 가지 큰 일과를 마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선다.

그리고 몇 시간 후, 툭, 툭, 투둑, 투두두두두두둑

하...오늘도 나의 빨래는 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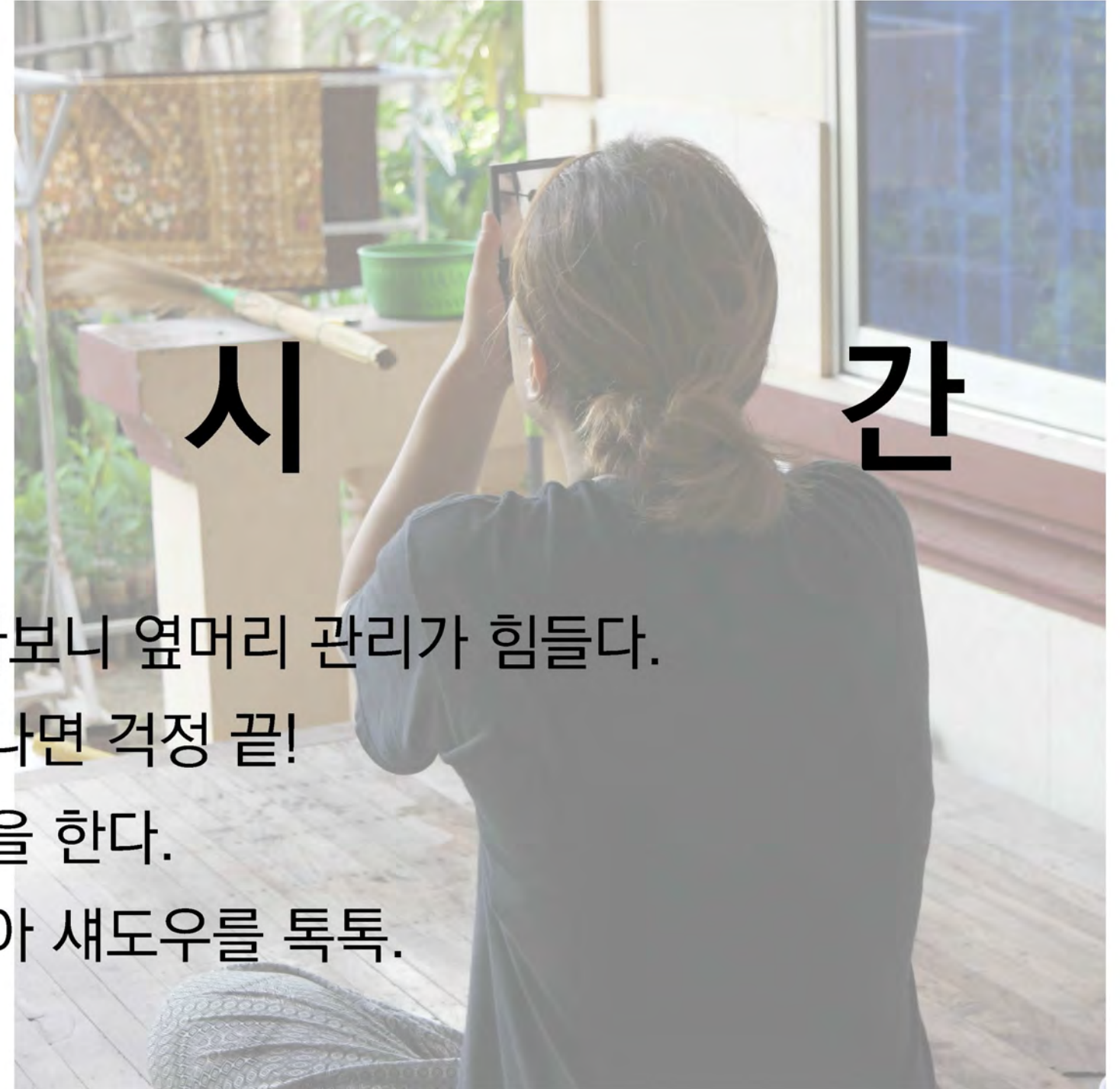
♪ 나란히, 나란히, 나아~란히 ♪





아침

뺨나는 짧은 머리인데다 직모이다보니 옆머리 관리가 힘들다.
하지만 귀마개 하나면 걱정 끝!
나래는 화장을 한다.
화창한 햇살을 조명삼아 새도우를 툭툭.



시간



낮

잠

12:00p.m. ~ 14:00p.m.

2시간의 긴 점심시간.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잔다.



시

간



저

녁



시

간

매일 밤 달는 나눔은 꼬박꼬박 하고 있다.
달는 나눔이 끝나면 반냐는 부엌 창문 앞으로 간다.
그리고 반냐와 우덤은 안 쓰는 방으로 전화기를 들고 차례로 사라진다.
그리고, 그들은 보이지 않았다.

(feat. yeojachingu)



집들이



Mr. Meng의 초대를 받아
프놈펜에 있는 Mr. Meng의 집으로 가는 길
날씨는 맑고 구름은 손에 잡힐 듯 몽글몽글하다.

처음엔 그냥 맹씨의 집에 초대받아
점심식사를 같이 하자는 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함께 하고 있었다.





그리고
딸바보 아들바보가
두 명 있었으니

오늘 집들이엔 우덤의 딸 비싸이와 미술 선생님인
쏩찌웃의 아들 록따이도 왔습니다.



록따이ㅎㅎㅎㅎ

사실 이 날은 9월 27일, 한국에서 있었다면 추석 연휴였습니다.

한국에서 추석연휴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친구들이 고향에 내려간다는 소리가 들려와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Mr. Meng의 초대를 받아 간 곳에서
우리는 추석 분위기를 흠뻑 느끼고 온 것 같습니다.

처음 본 사람들이지만 같은 자리에 둘러앉아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아도 '피니'를 외치며
즐겁게 사람들과 어울렸던 감사한 날입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
Mr. Meng :)

김종원

한국에서의 23살 김종원은 대학생 김종원, 한 회사의 대표 김종원, 농사꾼 김종원, 한 가정의 평범한 아들 김종원, 여러가지 이름들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한다.

자의든 타의든 그런 선택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득.. 어느 날 라온아띠라는 이름을 달고 살고있는 나를 보고 그 전의 나의 선택들이 잘 됐든, 잘 못 됐든,

그 때의 선택들을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나의 첫 한 달은 행복했던 것 같다.



한 길



한 달은 정말 금방 지나갔다. 캄보디아 까리타스 센터에 오는 다섯 번째 라온아띠인 우리는 이미 전혀 한국인이 낯설지 않은 이곳 사람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적응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국제 자원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건지 고민했다. 사실 국제 자원 활동이라 할 만한 일들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감도 안 잡힌다. 딱히 전문성을 띄지 않고 있는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일들이 이곳의 큰 필요에 의한 것들일까.

까리타스의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예산과 함께 한국에서 온 우리는 아직 더적극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해 자원활동을 펼치기에는 현지의 요구나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단순히 봉사자로 일손만 돕기에는 우리의 의욕이 넘친다. 국내 지역 훈련에 앞서 간사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센터의 정식 스태프도 아니고 방문한 손님도 아닌 애매한 위치다.

까리타스를 거친 지난 라온아띠들이 해 왔던 걸 당연하게 반복하고 싶지 않다.

더 많이 친해지고 더 많이 같이 고민해야지. 교훈적인 마무리다.

나 3세



밤 10시만 되면 잠이 온다. 침대로 가기 전에편지를 쓰고 <흐르는 강물처럼>을 읽는다. 항상 비가 내릴까 봐 걱정하고 날이 맑으면 기쁘다. 알람소리 없이 잠에서 깬다. 술 마시는 자리가 두렵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기적인 나, 어설픈 나, 낮을 가리는 나, 게으른 나, 자꾸 뭔가를 잊어버리는 나를 발견한다. 그런 나를 싫어했다가 다독여주기도 하고 다시 혼을 내기도 한다. 어느 날은 귀찮아서 피하고, 어느 날은 유심히 들여다본다.

또, 함께 산다. 두 달 전만 해도 전혀 몰랐던 세명과 함께 살고, 옆집 여이와 함께 살고, 까리따스 직업학교 학생들과 함께 살고, 니코를 포함한 세 마리의 강아지와 함께 산다. 눈이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다. 어느 날은 그 누구보다도 가깝게 느껴졌다가 어느 날은 매우 멀게 느껴진다.

자책 했다가 즐거워 하고, 부듯해 했다가 실망하고. 하루에도 우울 했다가 기뻐다가를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다 소로

언제 갈까 싶었던 9월이 갔다.

항상 이렇게 살면 그냥 나 혼자만 생각했을 땐, 평화롭고 좋을 것 같다. 휴대폰의 구속도 없고, 휴대폰 없이도 항상 사람들이 있고 나를 반겨주고 하늘은 높고 구름은 몽글몽글.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래서 모든 게 끊어지면, 그러면 그냥 그런대로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내리는 비를 본다. 무덤기만 하던 날씨도 그렇게 비가 오는 날엔 서늘해진다. 굳이 우산을 쓰고 멀리 나가야 하는 일도 없고 그냥 가까운 거리는 비도 맞아본다. 시간이 남으면 마을 산책도 하고, 거리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인사도 하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그러다 마을 아이들과 말이 안통해도 그냥 까르르 웃으면서 놀다가 피리 부는 소녀가 되어 아이들이 내 뒤로 즐즐즐. 심심해서 혼자 마을을 돌아다니면 마을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집 앞에 앉아 아주머니와 아이들과 짧은 크메르어로 이야기도 나눈다.

집 앞 평상에 누워 천장에 붙어다니는 찹찍을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 그러다 하늘을 바라보면 낮에는 반짝반짝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고 밤에는 희끗희끗 구름이 흘러간다. 별이 보고 싶으면 집 앞 골목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면, 달이 환하게 떠있고 별들이 반짝반짝, 날이 좋을 땐 기분 좋은 바람도 살랑, 분다.

단 한번도 살아보지 못한 생활을 너무나 만끽하며 살고 있다. 자원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이 곳에 왔기에 그 뜻을 고민하며 살고는 있지만, 자원활동이기 이전에 나는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생활이 참으로 여유롭고 풍족하다. 물론 아직 이 곳의 불편한 사실들을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일지 모른다. 불편한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함께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생길 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그냥 잠깐, 지나가는 기억이 떠올랐지만 그래도 괜찮다.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옆에 항상 있어주니까. 나는 금방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은 그냥 오늘 이 기분을 잠시 다른 것에 빠져 잊으면 내일은 또 항상 그렇듯 좋은 하루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어느새 9월이 가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혹은 너무나 많은 것을 한 9월이 가고 있다.

내가 생각만 하고 그려보기만 하던 바로 그 9월이 가고 있다.

아까운, 그리운, 9월이, 가고 있다.

See you next month :D

